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2011년 12월 15일(목) 08:00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문의: 산업경제정책과 김성칠 과장(2110-5111), 남명우 서기관(5112), 박지운 사무관(5116)	

"1조 달러 행정, 2조 달러 전략"

- 2012년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-

< 2012년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개요>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내년 실물경제와 에너지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, 「무역 1조 달러에 걸맞은 따뜻한 행정」과 「2조 달러 경제를 여는 성장전략」을 펼쳐 나가기로 함

○ 내년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고조,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조짐, 국내 전력수요의 지속 증가와 고유가 등 원자재가격의 불안 등으로 실물경제·에너지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으나, 미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1조 달러 경제를 넘어 2조 달러 경제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해로서,

- ①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②무역 1조 달러 성과를 청년과 서민층이 체감하도록 하고 ③미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함

○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15일 '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플라자'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함

□ 업무보고에 이어 '수출저변 확대와 무역 2조 달러 시대'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에서는 강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, 새로운 수출동력 발굴, 신흥시장 개척 등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수출 저변 확대방안이 논의됨

○ 특히 금번 토론은 과거와 달리 일선현장에서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

□ 업무보고가 끝난 후 대통령과 직원들이 함께 '1조달러 행정, 2조달러 전략'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이벤트를 통해 무역 2조달러 시대를 향한 지식경제부와 유관기관의 의지를 재차 다지는 계기를 가짐

< 2012년 업무계획 주요내용 >

1. 무역 1조 달러 성과가 지속되도록 실물경제 둔화에 선제 대응

□ 위기대비 실물경제 대응체제 가동

○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폭과 함께 국내 실물경제의 둔화 조짐으로 인해 내년도 실물경제는 금년보다 어려울 전망임

○ 실물경제가 어려울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동중인 "실물경제동향점검 T/F*"를 통해 수출, 투자, 고용, 에너지·자원,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

* T/F 구성 : 주요 업종별 단체, kotra·무보·중진공·산단공 등 유관단체

- 특히, 우리 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무역보험을 862억 달러('11년 787억 달러)로 확대 지원하고,

- 석유·철광석·구리 등 16개 주요 원자재에 대한 수급·가격변동에 능동대응하기 위한 상시경보시스템(WACS*)을 구축·운영할 것임

* WACS: Warning and Control System

○ 또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기별로 조사·발굴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*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,

* 기업환경 평가 순위(세계은행): '08년 23위→'09년 19위→'10년 16위→'11년 8위

-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①양주·이천·김해·원주 등 4개 산업단지(257만㎡) 준공, ②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 시 조세감면, ③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, ④新성장동력펀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

○ 향후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보다 가시화될 경우에는 '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살려 T/F를 "실물경제종합지원단"으로 개편하여 상시 조직화하여 보다 종합·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임

2. 에너지·자원 수급 안정화에 총력

□ 전력수급시스템 안정화

○ 정전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설비·계통 안정성 강화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임

- 전국 232만개의 전력설비에 대한 전면 점검*을 실시하는 한편, 노후 설비 교체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는 등 내년 송배전 등 시설개체를 위해 1조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임(한전)

* 점검팀 구성: 전력거래소, 한전, 한수원, 발전 5사 등
* 대상: 발전소, 송전철탑, 변전소 등 전력설비 232만 개소, 전선로 3,294km

○ 안정적 예비전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수요관리를 해나갈 계획임

- 대규모 전력사용자를 대상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사용량 10% 감축을 의무화함

* (대규모 사용자) 계약전력 1,000kW 이상 사용하는 14,000개소
(피크시간) 오전 10~12시 / 오후 17~19시

□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에너지절약 운동 실천

○ 전 국민이 전기 5% 모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경제계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절전을 실천하고 절약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 연간 5% 절전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임

* 2010년 전체 전력사용량인 4,342억kWh의 5%(217억kWh)를 절감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 2.5기 발전량에 해당되며 연간 2조 1,470억원 절약 가능

○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여 전력수급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, 자율실천하고 성과 점검하는 시스템도 차질없이 구축해 나갈 것임

* 전력수급시계(전력상황 국민들에게 실시간 전달), 절전사이트 운영, TV·라디오·신문·온라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등

□ 국내외 에너지·자원 확보와 내실화

○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는 석유공사 대형화 전략('08~'12년) 이행, 유망광구 매입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·완수하고,

* 자주개발 목표(%): 석유·가스 ('08)5.7→('11)14→('12)20, 6대 전략광종: ('08)23.1→('11)29→('12)32

- 이와 함께 자원개발 공기업의 기술역량과 경영효율성 제고, 기존 광구의 생산량 증대, 재무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실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임

○ 국내적으로는 폐가전 등에서 희소금속과 원료를 추출하는 「도시광산」 활성화를 통해 국내 자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

- 산업수요 등을 분석하여 철 등 전략금속을 선정한 후 산단공 등을 통해 폐가전을 수거하여 정련·고순도화 과정을 거쳐 원료금속 회수

* (참고) 금광석 1톤에서 금 5g 채취 Vs 휴대전화 1톤에서 금150g, 은1.5kg 회수

3. 청년 일자리·고용 창출 책임 실천

□ 민간·공공분야에서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 30,000여개 제공

○ **민간분야 26,500명 고용창출 지원**

- 지경부 R&D사업의 인건비 투자를 확대하여 청년 연구인력 20,000명을 채용

* 지식경제 R&D 인적자본 투자비중: ('10) 30%→('12) 40% (독일 58%)

-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·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World-Class 300 프로젝트를 통해 2,000명 채용

* World-Class 300 선정 30개 기업은 '11년 1,163명 신규채용

- 마이스터고·특성화고 학생의 기업 인턴십과 취업연계, 이공계 대학생 고용조건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4,500명 채용

* '13년 첫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학생(3,600명) 100% 취업추진 등

○ **공공기관 신규채용을 통해 4,000명에게 일자리 제공**

- 한전 등 60개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(3,500명), 우정사업본부·특허청(500명) 등 공공분야에서 4,000명 신규채용

□ 청년에게 감춰진 좋은 일자리 찾아주기와 고졸 산업인력 능력대우

○ 성장성이 높고 비전이 있는 World-Class 300, 세계일류상품기업 등의 숨겨진 좋은 일자리를 전문가와 함께 직접 발굴하여 청년층에 적극 홍보할 계획임

* 사례) World-Class 300 기업에 선정된 후, 과거와 달리 연구원 00명 채용에 2,000명이상 지원, 기업 이미지 제고가 청년 유인의 원인임을 실증

○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고졸자도 성과·능력에 따라 일정기간(4~7년)후 대졸자와 동등 대우받도록 하고 민간에 확산

□ 청년 기피 일자리를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

○ 행복산업단지 만들기 프로젝트(QWL밸리 조성사업)의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계획임

- 대학캠퍼스, 기업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를 3개 산업단지에 추가로 조성('11년 3개→'12년 6개)하고 반월·시화 산업단지에 QWL 캠퍼스, 기업연구관과 문화센터를 조기 준공할 것임('12.10월)

○ 뿌리산업의 청정·첨단화 공정 도입*, 오폐수/폐기물 공동처리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고, 전문특화단지('12년 2곳 지정)와 협동화단지 등 전략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임

* 뿌리산업 : ①주조 ②금형 ③용접 ④소성가공 ⑤표면처리 ⑥열처리

* (도금) 증착공정 등 첨단 신공정 도입으로 오염유발형 도금공정을 오염 무배출형 공정으로 혁신

(주조) 경량화 소재 등 신소재 가공공정 도입을 통해 고부가가치화

- 아울러 뿌리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*를 설립할 계획임

* 생산기술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센터 지정하고 생기원 지역본부와 연계

□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전문 일자리 확대

○ 레저요트 R&D, 디자인 등과 기계판매(유휴장비 유통 등) 수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, 공공·R&D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산업 등을 육성해 나갈 계획임

* 요트 R&D, 중소기업 요트생산 지원을 위한 개발센터 구축(서남권 개발센터 구축 '11~'14), 디자인·생산 전문인력 양성 추진

○ 우리 산업발전 노하우에 대한 개도국의 컨설팅 수요와 ODA 등을 바탕으로 컨설팅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해 청년이 선호할 전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임

* 산업컨설팅 수행경험이 있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는 컨설팅기업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산업컨설팅 포럼 구성

4. 서민생활 보호와 안정화

□ 서민물가 안정화

○ 알뜰 주유소를 '12년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700개*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알뜰 주유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임

* 700개: 자가폴 200개, 농협 450개, 고속도로 휴게소(주유소) 50개 등

○ 내년을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,

- 고의 판매시 한번만 적발되어도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와 섞어팔기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음

* 가짜석유 판매 불법시설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후 일제점검을 통해 적발된 주유소는 바로 등록취소(원스트라이크아웃제)하고 같은 장소와 시설을 사용 못하도록 2년간 영업제한

□ 서민생활 밀착형 지원

○ 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우체국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지원을 펼치겠음

- 저소득층에 대한 예금상품 금리 3~7% 우대와 수수료 면제, 고가의 보험료 없이도 재난과 상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'만원의 행복보험' 보급 등 친서민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

○ 집배원 1만 6천명의 유니폼을 보다 활동하기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집배원의 품격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겠음

5. FTA 중심국가로 도약, 드넓은 시장 확보

□ 중소기업의 FTA 활용 극대화 전략

○ One-Click 기능의 「통합무역정보시스템」*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FTA 무역정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임

* 관세, 원산지표시, 규격, 기술표준, 환경규제 등 국가별·품목별 정보 제공

- 특히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산지증명 등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"FTA 종합지원센터"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

- 이와함께 FTA 설명회, 세미나 개최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지역설명회·박람회도 개최할 것임

○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U턴 기업*에 대해서는 FTA로 인하여 좋아진 국내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고, KOTRA 내 원스톱 콜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국내 이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

* 중국진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 등 집중홍보, U턴 기업 지원 가이드북 등 발간

□ 선진시장 위축에도 고성장을 지속하는 신흥시장 진출 확대

○ 주요 신흥국의 경제개발 계획에 파트너로 참여하며 상대국의 산업발전 단계에 최적화된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인니(순다대교), 콜롬비아('Look Asia Project')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,

○ 러시아·브라질 월드컵 등 대형 SOC건설 붐에 적극 대응하면서 우즈벡 수르길 가스전+가스화학플랜트 등 패키지형 자원개발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할 예정임

6. 함께 가는 공생발전 산업생태계 조성

□ 자율적인 동반성장 문화 확산

○ 대기업별 동반성장지수를 산정·발표('12.3)하고, 동반성장의 지평을 지역·해외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

○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개선*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동반성장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음

* 대기업의 현금지급 확대 유도, 어음 결제시 어음할인료 현실화 등

□ '15년까지 120만명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,000개 육성

* '10년 기준 중견기업수 1,291개(80.2만명 고용)

○ 산업발전법 개정('11.3)으로 도입된 중견기업 개념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타 법령·제도에도 반영하여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,

-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R&D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고, World-Class 300 프로젝트 지원도 내년 60개사('11년 30개사)로 늘릴 계획임

* 녹색신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 R&D 신설 등을 통한 비중확대: '11년 28%→'15년 40%

- 향후 「글로벌 전문기업 클럽」을 통하여 기술개발, 글로벌 시장 개척, 고용창출 등 각종 know-how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

□ 지역산업밀착형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산업 자생력 강화

○ 5+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 사업('12~'14)에 본격 착수하여,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40개 광역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할 것임

- 광역권별 미래성장 2개 산업에 지역 대표 주력산업 2개를 추가로 지원하여 체감효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임

* 예: 충청권 반도체, 호남권 레저선박, 동남권 해양플랜트, 대경권 금속·세라믹소재 등

7. 멀리 보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

□ 융합을 통한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

○ 4세대 스마트폰(LTE-Adv.) 상용화를 2014년 조기 실시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에 대비하여 5세대* 모바일 환경 구축을 추진할 것임

* '11.7월 개시한 LTE 서비스(100Mbps)보다 10배 이상 빠른 1Gbps 이상) 이동통신 기술

○ 지식재산전문회사(ID: Intellectual Discovery)를 활성화하여 특허괴물의 공격 등 글로벌 특허·기술경쟁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히 특허관리·보호에 취약한 중소·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임

- 중소기업의 아이디어·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·이전·활용을 촉진하는 창의자본*을 내년까지 1,882억원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

* 창의자본(Invention Capital) : 아이디어나 특허권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를 높여 라이센싱, 특허매각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

* 창의자본을 민·관 합동으로 조성(`11년 772억원 ⇒ `12년 1,882억원으로 확대)

○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중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*에 대해 R&D 사업 등을 통해 시험장비와 제품 개발을 지원하거나 신제품 인증사업(NEP) 등과 연계해 판로 지원할 것임

* 모바일방송, 바이오인식 기술 등 118종(국제표준 채택기준, '11.11월)

○ 실패를 하더라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&D를 과감히 수행하도록 R&D 성공률을 단계적 현실화하겠음('10년 98% → '14년 50%대)

□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화

○ 산업·발전부문의 `12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녹색시설* 투자금 융자를 약 5,700억원 지원하고,

- 대·중소기업간 감축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'그린 크레딧'을 추진할 것임

* 녹색시설 예시) 고효율기기 도입, 폐열회수시설 설치, 전력효율개선 설비 도입 등

* 그린 크레딧: POSCO, 호남석유화학 등 6개 대기업이 13개 중소기업과 그린 크레딧 체결을 통해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(약 40억원 규모)

○ 향후 10년간 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개발을 위한 R&D에 민·관 합동으로 2조원을 투입, 에너지효율 개선과 함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임

* ESS(Energy Storage System) : 생산된 전력을 전력계통(Grid)에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스템

* 제주도 변전소 내 8MWh급 리튬이온전지 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중 (`11.7~`14.6)

□ 소프트파워를 새로운 강자로 육성

○ 전문 소프트웨어(SW) 기업 육성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'12년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을 법제화하는 한편,

- 대기업 참여하한 금액도 상향 조정*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

*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(40→80억원), 8천억원 미만 대기업(20억→40억)

○ SW 전문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하여 SW 마이스터교 설립*을 추진하고, 해외 고급인재를 초빙하는 브레인 스카우팅과 함께 국내 인재를 선진국에 파견하는 인력교류를 강화할 것임

<참고1> 업무보고회 개요

1 일시 및 장소 : '11.12.15(목) 08:00~10:00, IKP 1층 회의실

2 참석자 : 총 120여명

○ 지경부 : 장관, 1·2차관, 실·국장, 실무직원 등 40여명
○ 중기청, 특허청 : 청장, 차장 등 20여명
○ 청와대, 총리실, 녹색위원회, 기획재정부 등 60여명

3 세부 행사

<사전환담> (07:45～08:00)

○ 사전 환담 참석자 (22명)

- 정부 주요인사(국무총리, 지경부장관 등)와 유관기관장

<업무보고> (08:00～09:50)

○ 보고 (보고자: 지경부 장관, 중기청장)

- 내용 : 지식경제부·중소기업청 2012년도 업무보고

○ 토론 (진행: 지경부 장관)

- 진행방식 : 자유토론(주제 : 수출저변 확대와 무역 2조 달러 시대)

<직원과의 스킨십> (09:50～10:00)

○ 진행

- 지경부, 중기청과 유관기관 직원과 지경부 슬로건을 완성하는 이벤트 실시

○ 참석자 (10명 내외)

- 지경부 장관, 중기청장, 특허청장, 코트라 사장, 지경부와 유관기관 실무직원 7명

<참고2> 2012년 업무계획 중 주요 정책과제

정책과제		2012년 주요 정책과제
리스크 대응	실물 경제	○실물경제점검 TF 가동,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○석유·철광석 등 16개 원자재 상시경보시스템(WACS) 구축 ○경제자유구역 내 국내 기업 입주시 조세감면 등 추진
	에너지	○송배전 노후설비 등 시설개체에 1조7천억원 투자 ○약 4,400명 전문가 투입, 232만개소 전력설비 전면 점검 ○전 국민의 전기 5% 모으기 운동과 경제계의 5%절전 실천으로 217kWh 절약 ⇒연간 2조 1,470억원 절약 ○해외 자원개발 목표 완수 및 내실화 추진 * 석유·가스(%): ('08)5.7→('12)20, 6대 광종(%): ('08)23.1→('12)32 -자원개발 공기업의 재무적 부담 완화 등
1조 달러 행정	청년 일자리	○민간·공공분야에서 질 좋은 청년일자리 30,000개 제공 * (민간분야) 26,500명 고용, (공공분야) 한전 등 60개 지경부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4,000명 고용 ○World-Class300 등의 숨겨진 좋은 일자리와 청년 연계 ○지경부 산하 공공기관부터 고졸 산업인력의 능력대우 선도
	서민 보호	○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700개 확보 ○'12년은 가짜석유 근절의 원년, 가짜석유 판매행위 대대적 단속, 처벌 강화(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)
2조 달러 전략	FTA	○One-Click 기능의 '통합무역정보시스템'의 정보제공 확대 ○기업맞춤형 원산지관리시스템(FTA KOREA) 구축 ○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 U턴 지원(KOTRA 원스톱 콜서비스 등)
	산업 생태계	○'15년까지 중견기업 3,000개 육성(120만명 고용) ○'글로벌 전문기업 클럽(중견기업 등 300개 구성)' 결성 ○광역경제권 선도산업 2단계사업 본격 착수 ⇒ 지역체감도 제고
	미래 성장 동력	○4세대 스마트폰 '14년 조기 사용화, 5세대 모바일 환경 구축 ○특허괴물 공격에 대비, 지식재산전문회사 활성화 ○에너지저장시스템(ESS) 개발과 실증사업 확대 ○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 SI시장 신규참여 제한을 법제화(SW진흥법 개정), SW 마이스터교 선정